대구주보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2020. 10. 04. (가해) 제2235호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 21,43)

『사악한 소작인의 비유』, 마르틴 반 발켄부르크, 1585년경,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인쇄** | 대건인쇄출판사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전화** | (053)250-3048~9 **이메일** | jubo@dgca.or.kr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공군 용성대성당 주임 | 이창훈 리노 신부

찬미예수님!

저는 올해 7월 1일에 임관하여 공군 용성대성당에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창훈 신부입니다. '군대', '군인'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총, 군복, 제식 등 다양한 상징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각자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이미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형제님들은 자신의 옛 경험을 떠올릴 것이고,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군인 가족들은 걱정 어린 기도가 앞서겠지요. 저는 재입대한 군대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님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군인 아저씨나 군인 동생이 아니라, 군인 아들로 병사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그 속의 젊은이들은 서툴고 외로우며 사랑과 관심을 목말라합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상황은 더욱 그들을 고립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파견하신 까닭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밭 주인이 믿음으로 아들을 소작인에게 보냈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포도밭 주인이라 착각하며 재물, 명예, 건강을 빼기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신 우리 삶을 감사와 찬미로 봉헌하는 지혜로움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은 주변의 작은 이들에게 손 내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53번째 '군인 주일'을 맞아 전후방 각지 힘든 환경 속에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군인들을 기억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 사목에 도움을 청합니다.

매년 저희 군종 신부들이 본당으로 직접 방문하여 군종 사목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군종후원회 회원을 모집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여파로 인해 찾아뵙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종 사목을 향한 많은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군종교구 본당 공동체와 군 선교가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침(徐沈)나무

경북대 명예교수 · 만촌2동본당 | 박용구 토마스아퀴나스

달성공원에 서침나무가 있다. 나무 이름이 아니고 서침이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심은 회화나무를 말한다. 이곳은 삼한시대에 부족국가를 이루었던 달구벌(達句伐)의 성터였다. 고려 중엽 이후 달성 서씨(徐氏) 세거지였는데 세종대왕이 군사 요새로 필요하다고 하여 서씨 일문이 헌납하여 국유로 귀속된 곳이다. 세종대왕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문중의 대표였던 서침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국왕의 땅이거늘 국가시책에 따라 땅을 바친다고 어찌 신(臣) 혼자만이 부귀를 바라겠습니까?"라고 사양하였다. 그리고 대구 부민이 그 은혜를 고르게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대구지방의 환곡(還穀) 이자를 감해 주시기를 상소하였다. 이를 임금께서 받아들여 달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환곡 이자를 감면받았고, 그것이 조선말까지 이어졌다. 헌종 6년(1665) 이곳에 구암서원을 세워 구계 서침 선생을 모셨으며 선생의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기리기 위해 회화나무를 심고 그 이름을 서침나무로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몸집이 크고 키가 높이 자라는 나무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왕버들뿐만 아니라 회화나무가 있다. 회화나무는 느티나무에 버금갈 만큼 큰 나무로 자라 당산목으로 여러 곳에서 섬김을 받고 있다.

회화나무는 호탕하며 무게가 있고 깨끗하며 조화가 있는 위엄이 있는 나무다. 잎 모양이 아까시나무를 닮아 나이가 어릴 적에는 가끔 혼동할 때도 있다. 꽃이 적은 한여름 하얗게 피는 꽃은 밀원 자원이 된다. 회화나무는 당당한 용모처럼 국가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큰 인재가 배출된다고 하여 선비 마을에 많이 심었다. 중국에서 회화나무를 학자수라 부르며, 유럽에서도 Scholar Tree라고 부른다. 학자수란 나무줄기 자체가 각각 제 마음대로 뻗어나가 학자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회화나무 꽃에는 루틴이란 성분이 많아 고혈압 예방약이나 지혈제 등으로 사용하며 이 나무에서 나는 버섯은 괴이(槐耳), 괴아(槐蛾), 또는 괴균(槐菌)이라고 하며 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회화나무의 꽃은 쌀을 닮았다고 하여 괴미(槐米)라고 하며 괴미나무, 괴화나무라고도 부른다. 꽃만 아니라 열매도 강장제로 사용하며, 수액을 괴료(槐膠)라고 하는데 신경계통의 마비를 고치는 약제로 사용한다. 열매는 괴각(槐角), 괴관(槐串)이라고 하며 역시 약제로 사용한다. 공간이 넓은 곳에 정원수나 공원수로 심으면 높이 30m, 직경 2m에 달하는 대경목이 된다. 민속에서는 귀신을 막아주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다.

달구벌 성터에 있는 서침의 정신은 서상돈(아우구스티노)에게 전해져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그 정신은 2.28 대구학생운동으로 이어져 대구정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서침나무는 '달성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달구벌 성터'에 있어야 정답이 아니겠는가?

교황, 역사적인 뉴욕 방문 5년 후 유엔에 메시지

2020년 9월 17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엔에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교황청 공보실이 밝혔다. 공보실장 마태오 브루니는 지난 9월 16일 수요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황님은 오는 9월 22일 이후 유엔총회 기간 동안 열리는 '고위급 회의 주간' 회담에 메시지를 전달하실 것입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휴전 재요청

이번에 뉴욕 본부에서 열릴 유엔총회는 제75차다. 지난 9월 15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중요한 회의를 발표하며 지난 3월에 자신이 촉구했던 글로벌 휴전 요구가 2020년 내로 준수되기를 각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오늘날 우리 세계의 글로벌 안보에 가장 위협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난 3월 글로벌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몇 가지 긍정적인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향해 기대되는 새로운 과정들을 봅니다.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에 휴전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외교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멘을 예로 들며 "우리는 휴전과 정치적 절차 재개를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후문제와 코로나19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후 문제를 포함한 총회의 주제를 예고하면서 유례없는 여름 폭염과 파괴적인 화재를 일으킨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는 우리 기구의 삶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치료와 백신의 개발과 공정한 분배를 지원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즉각적인 파장에 대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2030 행동의제와 파리 협약에 근거한 강력한 재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9월 22일 개회

이번 총회의 새로운 의장으로 볼칸 보즈키르 터키 대사가 선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22일 화요일에 있을 화상 일반 토론의 개회 연설을 위해 유일하게 유엔 본부에 직접 참석한다. 실제로 대유행 기간 동안 필요한 물리적 거리두기와 같은 모든 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이다.

교황의 유엔 방문

정확히 5년 전인 지난 2015년 9월 교황은 미국 사도적 순방 중 역사적인 여정인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각국 대표자에게 심오한 연설로 빈곤층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세계는 긴급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이보현 프란치스코 (1773~1800년)

이보현(李步玄)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덕산 황모실(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의 부유한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친을 여의었다. 그는 약간 고집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후에는 어떻게나 난폭하였던지 아무도 그를 억제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20세가 좀 넘었을 때, 프란치스코는 고향 인근에 살던 황심 토마스로부터 교리를 배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황심은 훗날 북경을 왕래한 교회의 밀사로, 그의 아내는 바로 프란치스코의 누이였다.

진리를 깨달은 뒤 얼마 안 되어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행을 고치고 본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고 1795년에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에 모셔다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797년의 정사박해로 신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자, 프란치스코는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권면하며 가족과 동네 교우들을 격려하는 데 노력하였다.

박해가 시작된 지 한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곧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술을 대접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잔치'라고 말하였다. 과연 이틀 후에 포졸들이 연산 땅에 나타났고, 그는 즉시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연산 관장은 교우들과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라고 하면서 배교를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배교를 거부하고, "만물의 대군(大君)이신 천주께 대해 말한 책을 관장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화가 난 관장은 포졸들로 하여금 그에게 혹독한 매질을 하도록 한 다음 옥에 가두었다.

얼마 후 프란치스코는 그의 고향 덕산을 관할하는 해미 관장에게 이송되었고 이곳에서도 다시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여러 차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형벌 가운데서 "사람들의 기원이 태초에 그들을 창조하신 천주에게 있으니, 어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며 갖은 고문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옥으로 끌려간 뒤에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함께 갇힌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으면 매를 쳐서 죽이라'는 감사의 명령에 의해 프란치스코는 장터로 끌려 나가 혹독하게 매를 맞았다. 그럼에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망나니들은 그를 넘어뜨린 후 몽둥이로 불두덩을 짓찧어 끝장을 냈다. 그때가 1800년 1월 9일(음력 1799년 12월 1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며칠 후 교우들이 그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토록 많은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이를 직접 목격한 비신자들 여러 명이 입교하였다고 한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군인 주일을 맞아 본당 신부님들과 신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군종교구장 유수일 F.하비에르 주교의 제53회 군인 주일 글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5,1–7	**제 2 독 서**	필리 4,6–9	**복 음**	마태 21,33–43.
화 답 송	◎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①

그리스도교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교회는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죽은 이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잘 드러내는 매장을 전통적으로 장려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화장도 허락**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의 한국교회 적용 지침, 2항 참조)

왜냐하면 죽은 이의 육신을 화장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느님께서 죽은 이의 육신을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리시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장 자체는 영혼의 불멸과 육신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객관적으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매장 장소로 교회는 죽은 이들의 육신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 특히 **교회나 묘지에 모실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가 마지막에 머무르는 장소에는 꼭 **비석이나 이름표를 비치**하여 죽은 이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죽은 이나 산이나 세례 받은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962항 참조)

미사 안내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5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0일(토) 10:00 월성성당

여성교육관 갤러리 1981 개관 기념 전시회

• 전시 일정 •

9.21(월) ~ 10. 8(목) | 연필초상화 **정정웅**

10.12(월) ~ 11. 6(금) | 섬유공예가 **고은희 및 수강생**

11. 9(월) ~ 11.20(금) | 연필초상화 **정정웅**

장소 :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1층 / **문의** : 254-6115

제7회 노인의 날 사랑나눔 이벤트

기간 : 9.21.(월)~10.8(목) / **대상** : 신자 누구나

방법 :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메일(dgfamily@dgca.or.kr) 발송 및 인스타그램 업로드 등 (http://cafe.daum.net/noin0404 참조)

발표 : 10월 13일(화) 가정복음화국 카페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개별연락)

시상 : 참가한 모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감동이나 재미가 담긴 독창적인 작품을 보내주신 10분께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보내신 영상이나 사진은 추후 금빛신문에 게재 및 컨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 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녜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616) 척탑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일월매트총판 | 온 수 매 트
한 일 의 료 기 | 게르마늄매트
소 금 좌 욕 기 | 전 자 제 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건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윤광제(다윗) 신부
  2010년 10월 4일
- 부(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10.20(화) 14:00~21(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10.24~25 / 11.7~8
3박 4일: 10.29~11.1 / 11.26~29
8박 9일: 10.12~20 / 11.16~24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교육 | 모집 | 기타

2021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니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으로 문의 후 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0.12(월)~23(금) 10:30~11:30
14:00~15:00 / 문의: 256-6862

2021학년도 대건고 입학 설명회

일시: 10.24(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입학 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30(4주, 6주, 8주)
설명회: 10.24(토) 14:00
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7~11.11 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4층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010)8441-8011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 주말

381차: 10.23(금)~25(일)
382차: 11.27(금)~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성신여대입구역)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가톨릭상지대 2021학년도 수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9.23(수)~10.13(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채용 | 안내

학교법인선목학원 교원 채용 (1차 시험 교육청 위탁)

원서접수: 10.19(월)~23(금)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등은
선목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sunmok.or.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양상숙(모니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옴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제주도 · 추자도 성지순례
출발일 : 10월 19일 (2박 3일)
국내 167 곳의 거룩한 땅
성지순례단 모집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 철 래(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신고 제2005-118호
스피치, 모든 일의 가장 기본입니다!
스피치 리더를 완성하다!
Speech.Kim 스피치 킴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 입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중스피치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옆) T. 010-5538-3809
NAVER 스피치킴교육 김결이(사비나)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성모님 사랑 안 ~
안락한 노후생활을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Since1985
달성피부과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DALSUNG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